

448名이 지금 入住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근에 學校가 國民學校 3個所, 中學校 2個, 高等學校 3個 해서 8個校에 學生이 1萬 43名이 지금 登錄돼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市の 圖書館 設立支援 基本方向은 우선 圖書館 未設置 7個 區에 대해서 우선 建立을 支援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委員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5年度에 城東과 中浪, 그리고 冠岳區廳에 각각 20億 원씩 未設置區에 豫算支援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各 區別로 建立計劃과 該當區의 基準財政需要 充足度를 根據로 해서 40%에서 50% 정도를 支援을 해 나갈 그러한 計劃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請願에서 水西, 逸院地區에 圖書館을 지어주면 좋겠다 하는 請願에 대해서는 그 趣旨와 必要性은 충분히 認定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報告드린 바와 같이 圖書館 未設置區가 7個區나 있기 때문에 優先的으로 未設置區부터 支援하도록 이렇게 하고, 이 중에서 圖書館 敷地가 確保된 城東, 中浪, 冠岳 3個 區廳에 대해서 95年度부터 豫算에 編成해서 年次的으로 支援할 豫定으로 있습니다.

지금 趙議員님께서 請願紹介하신 江南區에 대해서는 현재 國立分館 等 3個의 公共圖書館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江南 逸院地區에 水西靑少年修練院에 閱覽席 120席의 그런 圖書館이 있고요. 江南綜合社會福祉館에 閱覽席 170席, 이것이 大峙1洞에 있습니다만 讀書室이 있고요. 그 다음에 城南綜合社會福祉館은 閱覽席 96席으로써 水西1地區에 位置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明洞綜合社會福祉館은 閱覽席 102席에 讀書室이 水西6地區에 있고, 그 다음에 水西綜合社會福祉館도 閱覽席 56席으로써 水西3地區에 있고, 逸院靑少年讀書室이 閱覽席 450席으로 그 부근에 開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비록 圖書館 및 讀書振興法上的 圖書館은 아니지만 이 부근에 圖書館에 준하는

讀書室로서 상당한 藏書와 閱覽席을 갖춰서 總 994席, 藏書 3,300卷을 보유하고 있는 讀書室이 있습니다. 따라서 圖書館 未設置 區부터 우선적으로 建立支援하는 그런 方針이 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未設置地區가 지원이 되면 그 다음에 필요한 事項부터 優先順位를 정해서 장기적으로 投資計劃을 檢討할 필요가 있는 事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委員님들께서 많은 이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喆鎬 다음은 專門委員 나와서 檢討報告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長虎 지금부터 江南區 水西地區 公共圖書館 建立要求에 관한 請願에 대하여 檢討報告드리겠습니다.

(報告)

1. 청원경위

본 청원은 1994년 11월 23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43-11 김장원의 8인으로부터 조문진원의 소개로 제출되어, 동년 11월 2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청원요지

수서지구는 저소득층인 도시영세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영구임대 주택 건립지역으로서 국·중·고등학교 8개교 1만여명의 학생이 있으나, 사설독서실, 학교도서관 시설이 없으며, 타 지역 공공도서관도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이용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 지역의 다수 주민 및 학교장들이 청소년들의 교화 및 주민들의 지역정보 문화센터로 활용키 위하여 택지지구내 미개설학교 용지에 공공도서관의 건립을 청원함.

3. 현황

가. 수서택지지구 개요

- 위치 : 강남구 일원본동, 일원1동, 수서동일대
- 주거 : 16,353세대(61,448명)
  - 아파트 : 17개단지 13,320세대(47,834명)
  - 기타 : 단독 및 다가구 주택 3,033

<p>세대(13,614명)</p> <p>○ 학교 : 8개교(국민학교 3, 중학교 2, 고등학교 3) 10,043명</p> <p>※ 도서관 부지 : 미책정</p> <p>※ 택지지구내 미개설 학교용지(4개소)에</p>	<p>도서관 건립요망.</p> <p>나. 도서관 건립 현황</p> <p>○ 총 28개 : 국립 1개, 시립 20개, 사립 7개</p> <p>○ 시립도서관 설치현황 : 21개소</p>
---	---

종로	용산	동대문	도봉	노원	서대문	마포	강서	양천	구로	동작	영등포	강남	송파	강동
3	2	1	1	1	1	1	1	1	2	1	1	2	1	2

○ 도서관 미설치구(7개구)-중구, 성동, 성북, 중랑, 관악, 은평, 서초

4. 검토의견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1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도서관을 설립·육성하여야 함.

○ 도서관 설립운영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특별시로 할 것이냐, 자치구로 할 것이냐가 중요한바, 자치구가 된 이후 현재까지 건립한 대부분의 도서관은 서울특별시의 예산의 일부를 보조받아, 자치구에서 건립하고,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시립도서관의 한 형태로 되어 있어, 자치구에서 건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시립도서관」이라는 명칭은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제정된 서울특별시립도서관 설치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되었기 때문이며, 서울특별시와 자치구에는 도서관설립 근거가 없음.

○ 집행부측은 그 동안 도서관건립에 대하여 선진국이 인구 2~5만명당 1개소인데 반하여, 서울은 인구 39만명당 1개소로서 그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예산의 형편상 우선 도서관 미설치구부터 건립을 추진한다고 함.

○ 청원인들은 현 강남도서관이 강남교육청 건물의 일부분을 사용하고 있어, 도서관 시설이 협소(건평 487평, 열람석 656석)하고, 도서관 이용률(600/일)이 극히 낮으므로, 현 강남도서관은 폐쇄하여 강남교육청 건물로 사용하고 수서지구내 새

로운 도서관 건물을 건립하려는 의도도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저소득층인 도시영세민이 많고, 그 자녀들이 1만여명인 점과 서울의 도서관수가 선진국 수준에 못미치는 점을 감안하여 수서지구내에 공공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은 타당성이 인정되나, 건립주체인 자치구와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청원을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

이상으로 檢討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喆鎬 그러면 本 請願에 대해서 質疑하실 委員 계시면 質問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文晉議員 또 質問하실 것 있습니까?

○趙文晉議員 執行部 答辯에 대해서 한 마디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定都600年事業을 今年에 대대적으로 施行하였습니다. 執行部에서 어느 區는 圖書館이 한두個가 있고, 어느 區는 없다는 얘기, 未設置 區에 우선 배정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答辯에 대해서 저는 통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市 文化觀光局에서 지금까지 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圖書館이라는 것은 專門委員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先進國을 쫓아가지 못할망정 그 근사치까지는 가야된다, 지금 社會에서 社會惡의 모든 것이 기성세대 기성세대 합니지만 學生들에게 잘못도 항상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學生들이 마음놓고 공부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주지 않고, 우리가 靑少年의 비